

정당한 보상 '염원'

10·27법난 기념행사 개최

조계종이 10·27법난 32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조계종은 10월 26일 조계사에서 32주년 기념 법회와 추모 음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사회부장 법광 스님, 10·27법난심의위원장 지현 스님, 법난 피해자 대표 원행 스님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아직도 10·27법난의 진상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 규모조차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는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열린 추모음악회에는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 정률스님, 테너 허철영, 등이 출연했다. 또한 이날 법회에 앞서 피해관련자 초청 간담회 및 만찬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1월 초에 '10·27법난 관련 법안 개정' 주제로 국회의회의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중순 예정인 순회 법회는 '10·27법난의 의미'를 일깨워줄 예정이다. 이밖에 11월 23일-30일 한국장각원에서 '선객'이 10·27법난 관련 내용으로 각색해 관객들을 찾아가는 **정혜속기자**

종교 벽 넘어 화합 다짐

KCRP, 종교인 화합대회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1000여명의 종교인들이 함께 뛰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10월 20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체육공원에서 불교 개신교와 천주교 등 7대 종단이 함께하는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협의회 김영주 총무,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유교 최근덕 성균관장, 천도교 임은길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 한국 7대 종단 수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이웃종교 화합주간 개막 선언 이후 계속된 종교간 교류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승 스님을 비롯한 7대 종단 수장들이 대형 1천인분의 비빔밥 퍼포먼스를 펼치며 종교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정혜속기자



“총림다운 총림 가능한지 살펴야”

조계종 쇄신위, 총림법 개선 위한 좌담회 열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범주사가 10월 26일 총림 지정을 신청했다. 동화사, 범어사, 쌍계사에 이어 네 번째 총림 신청이다. 불국사와 고운사, 월정사 등도 현재 총림 지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 교구본사에 불교 있는 총림 지정 추진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에 대한 의견들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은 10월 26일 '총림법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총림 지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총림 방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 필요성과 주지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불신임 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총림의 임회 구성원을 단원직을 축소하고 선출직을 대폭 늘려 견제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중앙총회의원 원학 스님은 "총무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은 겸직 금지 조항이 있지만 방장은 금지 조항이 없다. 임기도 10년 연임으로 문중 화합 정신이나 능력

들이 고려될 수 없다"면서 "방장 권한에 대한 견제 기능이 명문화되어야 하며, 임회나 산중총회를 통해 불신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임회는 방장과 주지의 뜻을 추진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회 구성원을 50명으로 늘리고 단원직을

대중공의 반영 절차 필요해

방장 권한 막강... 견제되어야

'총림 필요성' 문제 제기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선원수좌회 성두 스님은 방장 주지추천권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방장의 주지 추천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방장 추대 방법이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총회의원 법진 스님도 "방장의 주지 추천은 그대로

두되 임회의 2/3 동의를 얻어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참가 스님들은 제대로 준비된 곳이 총림으로 지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주지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총림 지정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학 스님은 "현재 총무원장, 본사 주지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총림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총림이 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정된 총림과 앞으로 지정할 총림을 어떻게 가려나가는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선임 스님은 "5대 총림부터 여법하게 잘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계종 쇄신위는 '총림법' 개정 의견을 수렴해 총무원장이나 총회 의안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앙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제구호단체 '하얀코끼리' 출범

26일 창립기념식 개최

불교 자비 사상을 세계에 전하기 위한 국제구호단체 (사)하얀코끼리(이사장 영담)가 출범했다.

(사)하얀코끼리는 10월 26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사장 영담 스님은 "기존 해외구호사업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정해 열심히 구호사업을 펼치겠다"며 "먼저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 도문시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센터를 건립과 조선족 유치원 지원 사업, नेपाल에 자원봉사단 파견과 초등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보선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타고 온 하얀코끼리의 의미가 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단체인 (사)하얀코끼리는 중앙총회 정책 모인원이었던 보림회 소속 스님들을 주축으로 구성했으며,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수륙재, 포교 활용 가능성 충분”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50차 포교연찬회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0월 24일 '수륙재를 통한 포교활성화'를 주제로 제 50차 포교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사진)은 수륙재에 대해 △종교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경제적 기능 등 세 분야에 나눠 포교활성화에 활용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상 스님은 수륙재의 종교적 기능에 대해 "수륙재는 불교세계관을 넘어 재래 종교의식에 속해 포함된 중생 제도의 공통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다"며 "화합의 상징으로서 세계의 평화를 통해 국민민안을 이끌고, 국운창성을 이룰 수 있다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사회문화적 기능에서 "수륙재는 고려와 조선 초 사회불안을 진정

시키기 위해 실행돼 민심수습책의 성격이 강했다. 문화적으로는 충효사상과 세계 만민인식을 포함한 한국 고유의 전통의식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수륙재는 종합의식으로 템플스테이 위주의 포교 상황에서 의례와 의식을 통한 포교로 포교다변화를 이룰 수 있다"며 "의례의 한결본원, 백중 의례로서의 정착, 영상콘텐츠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는 조계종 여장동주 스님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표했다. 노덕현 기자

“헌법 기반 인권 강화하겠다”

불교사회학, 대선후보 캠프 인권정책토론회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인권 관련 공약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와 인권정책연구소(소장 김형완)가 10월 23일 '차기 정부 인권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한 인권정책토론회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후보 캠프 대변인들이 나와 차기정부 인권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하태경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최경숙 시민캠프 인권네트워크 대표,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연순 대변인이 참가했다.

토론자들은 △자유권 △사회권 △환경권 △국제인권 △북한인권 등의 영역에서 후보들의 인권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인권정책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세 후보 모두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권 문제, 여성과 장애인 고령층에 대한 차별대우 등을 시급한 인권문제로 꼽았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집회결사 등의 자유권 분야의 보장을 강조했다. 복지정책 등 사회적 분야에서는 입장이 나뉘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사회권과 복지를 기본권으로 격상하거나 지나치게 보장하면 예산불균형 등의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숙 민주통합당 인권네트워크 대표 역시 현 정부의 자유권 침해 문제를 예로 들며 인터넷상 정치표현의 자유 강화를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인권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인권기법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권력기구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원 제2기 위원회 출범 '이젠 도약'

포교·신도·포교연구위원 28명 2기 어린이청소년위도 구성

포교원(포교원장 지원)은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포교위원회, 신도총체위원회, 포교연구위원회, 어린이청소년위원회 2기 위원을 위촉했다.

조계종 위원회인 어린이청소년위원회를 포함해 포교원 산하의 위원회는 조계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포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마련된 전문자문위원회다. 사회 변화속도에 맞춰 포교원이 종단 밖의 전문가들에게 방안을 듣는다는 취지에 맞게 위촉식에서는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일요법회 등 현대식 포교 진행해야

포교연구위원회 위촉된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은 "아직 일선 사찰에서는 재일법회, 기도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현대인들의 삶에 맞는 포교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일요법회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포교활성화도 멀지 않다"며 "일요법회를 위해서는 설법을 하는 전문가들을 배출해야 한다. 중앙승가대를 비롯한 기본교육기관에서 설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교원 제2기 위원회에서는 총 42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김상사 주지 보산 스님도 "현대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 포교"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스님들이 보다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지사 총무국장 장명 스님은 풀뿌리포교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지역으로 갈수록 청소년포교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중소도시도 심각하지만 농촌으로 가면 포교는 고사상태"라고 말했다.

2기 SNS활동 등에 나설 것

첫 시행의 1기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2기 활동에서는 SNS 등 현대사회 흐름에 맞는 포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신도총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현 스님은 "신도포계를 비롯해 포교정책들이 자리를 잡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금년 SNS시대

를 맞아 포교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는 포교를 위해 나서고 있다"며 "발로 뛰는 포교원이 되겠다"며 여러 방면에서 지도편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포교위원회는 동광 스님(14대 중앙총회 부의장), 일관 스님(15대 총회위원, 전 포교부장), 장명 스님(직지사 총무) 등 11명이며 신도총체위원회는 지현 스님(총무부장), 심산 스님(동원 이사장), 해원 스님(한미음선원 주지) 등 9명이다.

포교연구위원회는 8명으로 헤거 스님(금강선원 회주)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등이다.

제2기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심산 스님(동원 이사장), 성행 스님(동원 상임이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노덕현 기자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가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교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중사, 대중사 급만 동참 가능)

법왕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시시오

심사후 우선 세계불교와 한국 불교 승가 정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출가 의식을 초발심의 행자로 돌아가 1주일간 중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남방불교의 중정 및 부중정 스님들의 지도하에 중정스님의 사찰에 입소하여 단기수행을 완료한 스님 중에 우선 108명의 원로 및 중진 비구를 모시고자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당겨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만이 추대위원회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고승 및 중진 스님들께서 500인 추대위원회를 심사 위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 2012년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 이력서 (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출발일시 : 2013년 2월 28일(음력 정월 19일) 6박 7일간 소승불교 체험 수업 정진 법납, 속납 일체 불문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미안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 木鐸 慧恩

전화 :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



불교 승단 품수 의식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 정법 수호의 깊은 의지로 지탄과 격려를 받으며 희생할 각오로 소승 목탁 글월 드리리니다. 한국 불교계에는 300여 종단이 있습니다. 중정스님 그리고 총무원장 스님 각 원장들 그분들의 명칭이 하나같이 대종사, 종사입니다. 아니 어쩌보면 모두가 대종사요. 너도나도 대종사 종사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별 위식과 고시가 없이 종현 종법에 의거하여 품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정리가 되고 조금은 걸려서 그래도 부처님 전에 부끄럽지는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종단을 불문하고 스님들께 미안마 연방 승가회 원로 및 부중정 스님들을 3중 칠사와 은 계사로 모시고 500여 스님들의 축하속에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에 따라 떳떳하고 자랑스런 구족계 의식을 봉행하여 왔습니다. 생각외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미안마 연방 승가회와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에서는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 봉행되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좋은 인연을 맺어 부처님의 가르 속에 정진하는 출가승으로 다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大僧正 목탁 혜은 합장

국제 포교사 자격 고시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구족계 자격자

1. 구족계 자격 : 한국의 모든 종단 소속 비구 스님
2. 법납이 많고 직고를 불문하고 출가승에 한함
3. 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중사 대중사 품수식

1. 법납 25년 이상 : 중사 2. 법납 30년 이상 : 대중사
- *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2차 : 심의위원회
- 최종심사스님들께 품수 인준서 및 새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수여하는 국제 불교 지도자 포교 공로 훈장 수여

구족계 수계자 전원 부중정 스님 사찰에 입소 수행 결사 (위빠사나, 발우공양 예불의식) 체험 후 구족계 봉행 남방불교 전통의 불명 수여

일시 : 2013년 2월 28일~3월 7일까지 (1주일간) 봉행 행사 이후 한국에서 재 추대행사 계획

2013년 4월 16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의식 봉행 및 연예인 축하 공연

전화 :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